

# “구강악안면분야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 만들 것”

오희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 구강악안면학회 회장 취임

故 이상철 교수에 이어 22년만에 한국 두 번째 선출  
온라인 교육·원격 환자 치료 등 선진 시스템 마련할 것

오희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범 아시아권 치과 학회 가운데 유일한 외과학회인 ‘아시아 구강악안면학회’의 회장에 취임했다. 오 교수의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 취임은 국내에서 두 번째이다. 구강악안면학회는 치과 학회 중 고도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 학회이다.

26일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오희균 교수는 지난 25일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Asi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제15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구강악안면외과 학회이다.

오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대만 타이

페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고,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각국 대표단 회의에서 제15대 학회장과 학술대회장으로 선출됐다.

28년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학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1998년 고 이상철 교수(경희치대)에 이어 22년 만에 두 번째이다.

오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202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대회를 관장하게 된다.

오 교수는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장으로 재임 시 용봉동 치과병원을 건립했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2·3대 대학원장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연구소장, 대



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 학회 회장,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두개악안면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의 학술단체인 AOCMF Korea 회장으로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술 활동 이외에도 20여년 동안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등에서 구순구개열(언

청이), 구강암, 임플란트 수술과 연수교육 등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 오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는 중국, 호주, 몽골 등에서 매년 많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연수교육을 온다. 현재도 방글라데시와 중국에서 4명의 치과외과 의사가 석박사 학위 대학원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온라인 교육과 원격 환자 치료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시스템을 마련해 각 나라의 젊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에게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능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을 배출하겠다”며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임상적인 면과 학술적인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바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수완센트럴병원 고길석 원장, 조선대병원 신축기금 1억원



수완센트럴병원 고길석 대표원장은 최근 조선대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조선대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길석 대표원장은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완센트럴병원 대표원장과 조선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아시아문화원, 의정부·군포문화재단과 상호 교류 협약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가운데)과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왼쪽),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목적회의실에서 공연 콘텐츠 개발과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문화예술기관은 ▲한국과 중국 전통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제작 공동 추진 ▲공연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협력 ▲기타 콘텐츠 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공연 콘텐츠를 공동으로 창작·제작하기 위한 협력 추진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협력의 기반을 만든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3개 기관이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힘쓰면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 주거 취약농가 대상 환경개선사업 진행

14곳 장관·싱크대 교체 등

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농협네트웍스가 광주·전남 지역 주거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올해도 지역 농협의 추천을 받은 농촌 노후주택 14곳에 대해 장관·벽지, 전등·배선공사 및 싱크대 교체하는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삼도농협의 추천을 받은 농가에서 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를 했다. (사진)



공사 현장을 둘러본 오종선 삼도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농가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과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득희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장

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더 형편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농업인을 위해 주택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영농차량 무상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복 나눔 봉사를 통해 농업인의 꿈과 농촌 미래의 행복네트웍스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농협네트웍스는 농민·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협의 건물 시설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용차량사업, 미디어사업, 농촌체험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1만여명의 농촌체험여행객을 수송해 31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우리, 다시 호프 프롬 코리아	00 쌤, 마이웨이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0 특목·보통설계
1	00 KBS 네트웍스 특선 거북이 다큐스 50 안녕 우리말(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생생정보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20 내고향 전파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전교톱10 학클럽 45 뱃 바다(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TV 동물농장(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좀비탐정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10 펜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창사특집 도올특강 마한명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0 불타는 청춘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숨비소리)(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2020 교향악축제 KBS교향악단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제시의 쇼!터뷰 25 나이트 라인 55 네모세모(재)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하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크프라이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유림을 읽는 즐거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트	-파리, 나폴레옹을 만나다〉
09:00 뽀로로 동화나라	16:15 로빈 후드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영 유치원(재)	〈어느새 가을 2부 고개 넘어 친구가 산다〉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크프라이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11일 癸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48년생의 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60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72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84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도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96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4, 85

**丑** 37년생 기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49년생 사소한 것에 이끌리다보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61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약재가 보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73년생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85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97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1, 70

**寅** 38년생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50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번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74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86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될 것이다. 98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57, 88

**卯** 39년생 기민하게 감구한다면 많은 것을 얻는 길사가 있을 것이다. 51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63년생 오랜 세월 동안 성가셔 왔던 문제가 해결 되는 성국이니라. 75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87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수가 될 수도 있겠다. 99년생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행운의 숫자 : 28, 75

**辰** 40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52년생 오류가 보이니 신속히 바로 잡자. 64년생 들린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76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겠다. 88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00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51

**巳** 41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53년생 찾아라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65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니라. 77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9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01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행운의 숫자 : 30, 96

**午** 42년생 득실 차가 작으니 큰 의미는 없겠다. 54년생 기다린 자만이 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66년생 세부적인 점점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78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90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02년생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73

**未** 31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니라. 43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55년생 영등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67년생 기존의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쓰라림이 보인다. 79년생 재수불공 한다면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91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1, 60

**申** 32년생 내버려두면 쇠하여 기력을 다 한다. 44년생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진행에 혼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56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느니라. 68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80년생 활동력에 따라 좌우되리라. 92년생 집착하다보면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0, 69

**酉** 33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나 전문가와 함께하자. 45년생 가득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57년생 그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69년생 고통과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81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93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7, 52

**戌** 34년생 깊이 있게 다루어 할 단계이니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라. 46년생 기준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 58년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70년생 객관적이어야만 어느 누구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법이다. 82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깝게 느껴도 된다. 94년생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과실이다. 행운의 숫자 : 09, 80

**亥** 35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7년생 무궁무진한 변화의 면모이니 기민하게 대응하라. 59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복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3년생 결모습에 현혹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95년생 치우치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제 국면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35, 68